

미국방 “주한미군 철수명령 안해”...감축설 부인

“배치 최적화는 계속 검토” “북한 FFVD 한국과 협력” 중국 향해 “북한 보호” 비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나는 취임했을 때 ‘국가국방 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의 핵심은 모든 지리적 전투 사령부를 검토하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

하도록 우리가 최적화했고 배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전투(戰區·theater)에서 우리가 군대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배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또 “우리는 역동적인 군대 운용과 같은 추가적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전구들에서 더 많은 순환 군대 배치를 계속 추구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외신이 보도한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철수 명령은 내린 적 없다면서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최적화를 위한 조

정은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 감축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이튿날인 18일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아프간·독일·한국에서 철군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두어 달 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협상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줄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17일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1년의 성취’라는 자료에서도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재할당 작업을 자신의 재임 1년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서 그는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 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축소하는 백지 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고,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미 의회는 초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경제를 강화한다는 미국의 국방 전략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發 경기침체 극복에 EU 27개국, 1030조원 지원 합의

공동 채권 발행해 자금 조달 이탈리아 최대 수혜국 될 듯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7500억 유로(약 103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에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나흘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이날 새벽 이 같은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0억 유로(1472조원)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지난 4월 EU 회원국 정상들이 설치에 합의한 경제회복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금 가운데 3900억 유로(534조원)는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3600억 유로(493조원)는 추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으로 제공된다.

EU가 이처럼 대규모의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 때를 포함해 과거 금융시장에서 공동으로 돈을 빌린 적은 있었지만 소규모였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수혜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향후 EU로부터 820억 유로(112조원)의 보조금과 1270억 유로(173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90시간이 넘는 길고 치열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벨기에



코로나 확산 속 취리히 강변 인파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리마트 강변이 여름 날씨를 즐기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브뤼셀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의는 당초 17~18일 이틀 일정이었지만 밤샘 협상에도 기금 구성과 조건 등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섯째 되는 날 새벽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의 비준이 필요하며 이르면 23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마스크 안쓰면 체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조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경찰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GMA 뉴스 등 현지 언론이 21일 전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각료 회의에서 “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면서 “마스크 미착용이 사소하게 보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서로 호송돼 구금되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단순한 위반 행위 때문에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실지만,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마스크를 사서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줄 테니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리핀 보건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에 1951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7만764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도 2명 추가돼 18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당국이 경제 회생을 이유로 마닐라 등 위험지역의 방역 수위를 준봉쇄령(MECQ)에서 ‘일반적 사회적 격리(GCQ)’로 완화한 지난 6월 1일을 전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고, 이날 들어서는 급증하는 추세다. /연합뉴스



중국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 중국 후베이성 언스 투자족·마오족자치주 마즈촌 인근에서 21일 발생한 산사태로 휩쓸려 내려간 흩어 양쯔강의 지류인 칭장의 흐름을 막고 있다. 당국은 강줄기가 막힌 탓에 인근 마을과 하류의 언스시의 주민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베리아 파견 한국 건설사 직원 1명 코로나19로 사망

다른 직원 7명도 감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2500km 떨어진 시베리아 도시 옴스크에 진출해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스프롬’의 현지 정유공장 현대화 공사에 참여 중이던 국내 D건설사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날 사망했다고 이르쿠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전했다.

가족과 함께 현지 파견 근무 중이던 40대 초반의 이 직원은 앞서 지난 10일께 고

열·폐렴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직원 외에 D 건설사의 다른 직원 7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2명은 입원 중이고 다른 5명은 증상이 경미해 자가치료 중이거나 이미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D건설사는 2018년 해당 사업을 수주해 직원 50여명을 옴스크로 파견했으며 가족 10여명도 현지에서 함께 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러시아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는 78만여명으로 세계 4위 규모다. /연합뉴스

“양배추·오이 많이 먹는 국가, 코로나 치사율 낮아”

프랑스 연구진 연구 결과

양배추와 오이 섭취량이 많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치사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의학논문 사전발표 사이트(medRxiv.org)를 통해 ‘유럽 국가별 야채 소비와 코로나19 치사율 간 연관성’ 제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아직 피어리뷰를 거치지 않은 이 논문에서 벨기에·영국·스페인·이탈리아·스웨덴·프랑스 등 6개국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벨기에의 경우 1만명당 800명 이

상 사망해 치사율이 미국의 2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에는 봉쇄조치나 기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끼치지만, 이들 국가는 공통으로 양배추와 오이를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국민의 일평균 양배추 섭취량의 경우, 프랑스는 1g이었고 나머지 5개국도 5g이 안 됐다. 반면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가 16명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라트비아의 경우 거의 30g을 섭취한다는 것이다.

일평균 오이 섭취량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진은 국가별로 국민들의 양배추·오이 소비량을 하루 1g씩만 늘려도 코로나19 사망률이 각각 13.6%, 15.7%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